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장 원 석 \*

### I. 서 론

세계제2차대전 이후 소련의 직·간접적인 영향아래 동구의 8개국 즉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동독이 차례로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동구 8개국을 모두 합해 보아야 유럽 전체 인구의 1/4인 1억2천만 정도이고 면적은 소련영토에 1/20에 불과한, 그리고 유럽 전체의 1/4정도인 50만 평방마일 가량이다. 이들 동구국가들은 아직 우리 한국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핵심세력이며 동구공산정권 출현과정이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동구국가들이 모두 공산국가들이며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통념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문화의 전통, 경제발전의 수준, 사회문화적 배경 및 소련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고 그들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서로 우호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묶음으로 이들 나라는 논의하는데는 적지않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토의 일부가 유럽에 자리잡고 있는 소련도 동구국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동구와 구별해서 취급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전임강사

## II. 동구의 공산화 유형

동구 여러국가들의 공산정권수립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상이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공산화의 경우를 다른 동구국가들의 공산화의 예와 구별하는 입장에는 공통적이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소련군의 군사적 개입없이 자력에 의해 공산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사적 개입이 동구의 공산화과정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흔히 「비운의 반도」(the tragic peninsula)<sup>1)</sup>라고 불러지듯이 동구는 중세이래 터어키,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시아등 인접 강대국들의 침략에 의해 끊임없이 전화에 시달려왔다. 1차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독립을 쟁취한 동구국가들은 서구식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근대화를 추진하였지만 동구 사회에 내재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적 제반문제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였다. 민족과 종교, 언어의 차에서 기인하는 갈등뿐만아니라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만연되어온 빈곤과 구조적 모순때문에 1929년 대공황은 이들 동구국가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당시 나찌와 파시즘세력이 동구를 장악하게 되자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 이후 동구의 볼세비키화를 위해 꾸준히 투쟁해 왔던 동구공산주의자들은 세계제2차대전 중 공산혁명을 위한 기반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쌓기 시작하였다. 동구국가들이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함으로써 나찌의 출현은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동구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동구의 공산화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역시 소련의 승리와 소련군의 진주였다. 소련은 2차세계대전중 이미 동구국가들을 공산화하기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테헤란, 알타, 포츠담회담을 통하여 동구가 소련의 영향권하에 속한다는 사실을 서방측으로부터 다짐받으려 노력하였

---

1) 이숙자,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Ⅱ)」,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서울: 박영사, 1986), p.91.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고 그 뜻을 이루기위해 사회담의 개최시기를 전황이 소련에게 크게 유리할 때 즉 소련이 군사적 승리를 거둔적후나 혹은 서방측이 패배를 맞본직 후로 정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서방측에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언제나 그로부터 얼마간의 이득을 얻어내곤 했다.<sup>2)</sup> 스탈린은 전후 동구의 공산화를 직접 주도하기 위하여 전쟁중 이에 이들 지역내에서 소련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반나찌저항세력을 견제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쏟았는데 그것은 때로는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예컨대 소련군이 폴란드로 진격해 들어가던 1944년 9월, 런던명명정부에 충성하는 폴란드저항군이 주도한 바르샤바봉기에 대해 스탈린은 의식적으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고독한 항쟁끝에 20만명이 끝내 나찌의 희생이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sup>3)</sup>

전쟁이 끝난후 소련은 힘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동구의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소련에서 잘 훈련된 동구공산주의자들을 요직에 배치하였다.<sup>4)</sup>

동구국가들의 공산정권수립유형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두개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우선 시튼-와튼슨(Seaton-Watson)이나 브레진스키(Brezzezinski)의 경우, 자력에 의한 공산화인가 소련군에 의한 공산화인가 혹은 그 혼합형인가 하는 점을 변수로 하여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시튼-와튼슨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동독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소련군에 의한 공산화의 경우로 보고 나머지 세나라 즉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를 함께 묶어 자력과 소련군의 힘이 혼합된 경우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브레진스키는 소련군의 점령에 의한 공산화의 범주에 불가리아를 추가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를 정치과정에서 참여를 통한 공산화로 별도 분류하였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안병영,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Ⅲ)”,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서울: 박영사, 1986), p.108.

3) *ibid.*, p.108.

4) 대표적인 공산주의 지도자들로 M. Rakosi(헝가리), K. Gottwald(체코), A. Panker(루마니아), W. Ulbricht(동독), G. Dimitrov(불가리) 등이 있다.

5) 안병영, *op. cit.* pp.112~113.

## 제 2 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 표 1 〉 동구제국의 공산화유형<sup>6)</sup>

	시튼-와트슨	브레진스키
자력에 의한 공산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소련군에 의한 공산화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자력과 소련 군의 혼합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정치 과정에의 참여		체코슬로바키아

이 표에 의하면 자력에 의한 공산화의 유형으로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를, 소련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공산화 유형으로서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을, 자력과 소련군 개입의 혼합형태로 헝가리를 각각 들고 있는 점에서는 대충 의견의 일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관해서는 각각 엇갈린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동구국가들의 공산화유형분류에 대한 상이한 견해는 동구국가들의 공산화과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소련의 위세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어느정도 의회주의적 정치과정이 늦게까지 용인된 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이며 다음 나머지 5개국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소련군의 힘이 공산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및 동독의 경우 소련군의 점령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정치적,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으로 보아 공산화의 소지가 없던 나라들이다.

한편 버크스(Burks)는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를 게릴라 정복형이라 칭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을 편승정부형(baggage train government)으로,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를 의회주의적 침투형으로 나눈다. 한편 불가리아는 제 2의 변용된 형태로 보았다. 편승정부형은 대체로 소련군에 의한 공산화의 경우로 이해되며 의회주의적 침투형의 경우는 대체로 브레진스키가 한 분류의 정치과정에서 참여형에 해당한다.

6) 최동희, 「소련과 동구관계론」, (서울:종로서적, 1985), p. 12.

### Ⅲ. 동구의 공산화 과정과 방법

#### 1. 동구의 공산화 과정

동구의 공산화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시튼-와튼슨은 동구공산주의자들이 3 단계를 거쳐 완전한 권력장악에 성공하였다고 지적한다.<sup>7)</sup>

첫단계는 순수한 연립정부(genuine coalition)의 단계로서 사회기반이나 이념 및 장기적 정책목표를 달리하는 제정당들이 단기적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합한 상태를 말한다. 단기 프로그램에는 파시스트들의 숙청, 급진적 사회 개혁, 정치적 자유의 실현등이 포함된다. 비공산당도 조직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 경찰과 군대와 같은 권력중추는 공산당에 의해 통제된다. 두번째 단계는 사이비 연정(bogus coalition) 단계로서 아직도 비공산제정당들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적구성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택해진 인물들이 대부분이 된다. 이 단계의 두드러진 특색은 초기에 인정을 받던 농민정당이나 부르조아 정당들이 반대세력으로 밀려나고 존립조차 점차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야당은 아직 용인되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지며 정치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가 급격하게 제한되며 반대세력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을 경찰이 방조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의 위계적인 조직체제를 확립하여 공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단독정권(monolithic regime) 시기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여 이미 세력을 잃은 사회민주주의세력은 공산당에 흡수되어 버린다. 어떠한 반대도 용납되지 않으며 반대파지도자들은 망명하거나 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되고 처형된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1945년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기타 동구국가에서는 코민포름창설 이후에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1948년말까지는 끝을 보게 되었다.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들로서는 불가리아의 농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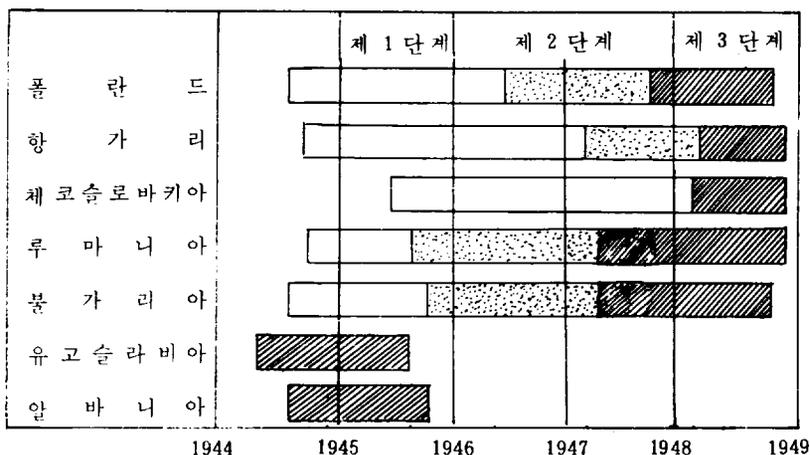
7)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 「소련 및 동구공산주의체제연구」, 1982, pp. 77~78.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도자 「페트코프」(Petkov)와 루마니아의 농민당지도자 「마니우」(Maniu)가 재판 을 받고 폴란드의 「미콜라예치크」(Mikolajczyk)가 도피한 1947년 가을의 사건 들, 1948년 3월의 헝가리 사회민주당에 대한 숙청,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서 공산주의자 고트왈트(Gottwald)에 의한 부르조아민주주의 청산을 꼽을 수 있다. 1948년 2월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직후 사임한 베네쉬(Beneš) 대통령이 사망하고 외상 마사리크(Jan Masaryk)가 자살한 사건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비 극적 상징이었다.<sup>8)</sup>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전후 동구의 소비에트화 과정을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표 2〉 전후 소비에트화 패턴의 비교<sup>9)</sup>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제1단계가 1945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계속되었 고 헝가리에서는 1947년 봄까지, 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48년 2월까지 계 속된다. 대체로 제1기가 길수록 얼마간 의회주의적인 정치과정의 존속이 길었 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제2기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1947년 가을

8: ibid., p. 78.

9: 김갑철, ibid., p. 71.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까지 계속되었고 헝가리 경우에는 1948년 초까지 끌고간다. 그런가하면 체코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제1기에서 하루 아침에 제3기로 건너뛴다. 또한 매킨토쉬(Mackintosh)의 경우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앞의 공산화 6개국은 다음과 같은 다섯단계를 거쳐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0)</sup>

1) 첫째로 공산당의 주도적 참여아래 민주전선, 애국전선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치적 연합이 수립된다. 공산당은 대체로 내무성을 장악하는 필요한 경우 국방성도 장악한다.

2) 두번째로 소련점령당국은 비공산주의 좌익정당이나 혹은 농민정당을 강제적으로 공산당에 통합토록 하였다. 불가리아에서 강압적으로 통합된 최종정당은 불가리아 최대정당이었던 농민당이었고 동독의 경우 공산당은 사회민주당을 흡수하여 통일사회당(SED)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3) 세째로 중도적 정당과 우익정당의 고립화를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과 처형, 강제추방 조치가 단행되었다. 흥미있는 것은 이 단계에서 스탈린은 대체로 트로츠키를 처리하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반대자들을 처형하거나 투옥시키기 보다는 추방시켜버리는 패턴을 더 따랐다는 사실이다.

4) 네째로 공산당의 수중에 정치권력이 확고히 장악되면 선거는 단일후보로 진행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에 디미트로프는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여 그를 최고후보자로 지명한 후에 모스크바에서 귀국하였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잔혹한 단계가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공산당내부에 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청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비모스크바파가 여기서 희생된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동구의 일반적인 공산화과정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경우 소련군의 지원없이 대독 빨치산 투쟁을 통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10) 말콤 매킨토쉬, "스탈린의 동구정책 : 1939-1948", 극동문제연구소, 「공산주의의 정권장악유형 : 1917년 이후 성패사례」 1977. pp.219-220.

## 제 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독일점령군에 대상하여 독자적인 해방투쟁을 전개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대독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수세력과 주도권경합을 벌이기도 했으나 뛰어난 통솔력과 능란한 외교를 통하여 상대세력을 누르고 전쟁중에 이미 사실상의 정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소련의 도움없이 거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전국을 장악한 티토는 1945년 11월 동구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고 유고슬라비아 공산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티토의 독자노선은 모스크바와의 심한 갈등을 초래하여 유고슬라비아는 1948년 6월 코민포름에서 축출되었다. 알바니아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빨치산 활동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알바니아 공산당은 1941년 결성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후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알바니아는 공산정권수립전에 소련이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빨치산 활동이나 공산당 창당에 있어서 또 경제 발전에 있어서 주로 유고슬라비아의 후원과 원조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알바니아는 소련에 대해서보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하여 자주독립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되었다.<sup>11)</sup> 그러나 이들 양국은 공산화과정에서 소련에 의한 암묵적인 도움 아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소련의 군사적인 점령이 없었지만 소련의 세력권내에 편입되어 친서방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으로써 반사적으로 공산정권의 수립은 보다 용이해졌다는 사실이다.

### 2. 동구제국의 공산화방법

앞서말한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소련이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소련군대의 영향력의 정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였다. 폴란드,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공산화에 있어서 소련의 군사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공산정권수립유형을 자력과 소련군의 지원과의 혼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소련군의 지원없이 양국의 공산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동구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련군의 영향을 적게받은 국가였다. 그래서 브레진스키는 유고슬라비아를 공산당이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공산정권을 수립한 유형에 포함시켰다. 1945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진주한 소련

11) 최동희, op. cit., pp. 34~37.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군은 같은해 12월 모두 철수하였다. 소련군의 주둔이 비록 단기간이긴 하였지만 소련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자들을 새정부의 주도세력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련의 간섭위협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자들을 간접적으로 크게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졌듯이 스탈린은 막강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나게 사용하기 보다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나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권력장악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공산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방 세력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소련의 세계적 이미지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sup>12)</sup> 토마스 하몬드(T. Hammond)는 동구공산화에 사용된 전술을 군대의 동원외에 위장전술, 점진주의, 조직적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여기서 위장전술이라 함은 현지주민과 서방국가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민족전선을 통한 대동단결의 구호 아래서 기만적인 약속들-예를들어 사유재산제보장-을 행하고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일체의 용어를 기피함으로써 혁명처럼 보이지 않는 혁명을 기도하였다. 점진주의라 함은 과격한 방법에 의한 정권탈취를 피하고 반대 세력이나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배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반대세력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른바 쏘세지전술에 의하여 한번에 하나씩 차례로 격파함으로써 반대세력이 단합하여 대항할 기회를 막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예를들어 집단농장예의 강제편입과정-국민의 저항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직적 계획이라 함은,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그들 국가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기 이전에 장래에 대한 독자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었으며 이점은 다른 정치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유리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어느 정부 부서부터 확보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같은 대중조직을 장악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비밀당원들을 여타의 정치조직에 침투시켰다.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한 이와같은 전술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통일

12) 토마스, 하몬드 "공산주의 정권장악사", 극동문제연구소, op. cit., p.34.

13) *ibid.*, pp.34~36.

## 제 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전선 형성과 인민민주주의론(people's democracy)이다. 이점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이란 인민전선, 민족해방전선, 조국전선 등 각 종명칭에 관계없이 공산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는 세력연합 전술을 말한다. 이것은 처음 파시스트국가들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다수의 세력을 결속시키려는데서 출발되었으며 최초의 표현은 1930년대의 인민전선(Popular Front)이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중 다시 결성된 민족전선(National Front)은 소련의 승리와 더불어 점차 성격이 바뀌게 된다. 즉 이전의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변모,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sup>14)</sup> 시튼-와튼슨의 분류를 보면 제1기와 제2기가 민족민주주의라는 이름하의 통일전선의 시기로서 이 기간은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정치·군사·경제의 국가기관내의 중요한 부분에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전선내의 투쟁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목표는 제3단계에 이르기 위한 중간목표로서 인민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통일전선 형성에 의한 정권탈취방법은 이미 마르크스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킨 사람은 레닌이다.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레닌의 저작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좌익 공산주의의 소아병」이다.<sup>15)</sup>

위의 논문에서 통일전선의 목적은 두가지로 요약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공산당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정당성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있으며 둘째는 통일전선의 대상인 연합군의 이용가치가 소멸될 경우는 언제든지 그 연합군에 대한 쿠데타를 강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동 논문에서 Lenin은 공산주의자들이 준수해야 할 혁명전술의 방향에 대해서 두가지의 전제를 달고 있다. 첫째로 「공산당은 자기의 정의를 순수히 보존해야 하며 개량주의에 대한 자기의 독자성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그의 사명은 중도에 머무르지 않고 노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

14) 토마스, 하몬드, op. cit., p. 33.

15) 이하 내용은 Lenin, "Left-Wing Communism. An infantile disorder" in James. E. Commor(ed), Lenin on politics and revolution (Westernpublishing company. Inc., 1968, pp. 284~314.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며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따위의 원칙으로 부터 출발하여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전술을 결정하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좌익 공산주의자)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들은 오직 1874년에 일체의 타협과 일체의 「중간역」의 부정을 선언한 불란서의 「코뮌」 참가자, 불랑키주의자들의 잘못을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언제나 그러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공산주의 일반적 기본적 제 원칙을 개별적인 개개 나라에 고유한 제계급과 제당간의 관계의 특수성과 공산주의에로의 객관적 발전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전제의 바탕 위에서 Lenin은 영국에 있어서 Lloyd George가 이끄는 부르조아 정부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제집단(브리벤사회당, 사회노동당, 남부는 웨일스사회주의협회, 노동당 사회주의 연맹)은 Henderson이 이끄는 노동당과 의회선거에 대한 참가 문제에 있어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연합을 반대하고 의회가 아니라 노동자 소비에트만이 프롤레타리아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브리벤사회당을 제외한 사회노동당, 노동사회주의 연맹자들을 가리킴)을 좌익 공산주의자, 즉 좌익 소아병환자로 매도하면서 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제기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에트정치가들을 사회의 내부에 들여 보내지 않고서도 소비에트가 의회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의회를 내부로 부터 와해시키지 않고서도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의회를 해산시킨다는 당면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소비에트의 성공을 의회 내부에서 준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해 본다면 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Lloyd George와 Churchill의 연합을 격파할 수 있도록 Henderson과 Snowdens에게 의회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혁명사업을 곤란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다수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은 불가능한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대중의 정치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선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Lenin에 의하면 혁명의 기본법칙은 혁명을 위해서는 피착취 대중 및 피압박 대중이 옛날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변경할 것을 요구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혁명을 위해서는 착취자들이 옛날 그대로 살아 갈 수 없게 되고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진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환원할 수 있다. 혁명은 전국민적 위기(피착취자나 착취자나 모두 맛보게 되는 위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ⅰ)노동자의 다수가 변혁의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여 또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ⅱ)통치계급이 정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야 한다. 그 위기는 가장 낙후한 대중까지도 정치에 이끌어 들이게 되어(정치에 무관심한 근로대중 및 피압박대중을 끌어 들이게 되어) 정부를 무력하게 만들며 혁명가들로 하여금 급속히 정부를 전복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노정에서 벗어나지 말고 타협없이 전진하라」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말은 마치 1만명의 군대가 10만명의 원병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머무르거나」 「길에서 벗어나거나」 「심지어는 타협까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의 적을 상대하여 전투에 돌입하는 것과 똑 같다. 이것은 인텔리틱 어린애 짓이지 혁명계급의 신중한 전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 노동계급의 혁명가들은 자기들이 혁명적 그룹이 아니고 혁명계급의 당이라고 한다면 또 대중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첫째 Henderson나 Snowdens을 도와서 Lloyed George나 Churchill을 격파하게 하여야 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전자에게 후자를 격파하도록 강요하여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기의 승리를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계급의 다수를 도와서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 영국 공산주의 제집단의 정당성을 즉 Henderson 일파의 완전한 무용성을, 그들의 소부르조아적 및 반동적 본질과 그들의 파산의 불가피성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셋째로 Henderson일파에 대한 다수 노동자의 실망에 기초하여 결정적인 기회를 이용하여 Henderson 정부를 일조에 타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영국 공산주의자들을 한개의 공산당으로 합동시켜서 Henderson 일파와 Snowdens 일파에게 타협으로 선거협정을 제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하게 폭로할 자유, 즉 선동과 선전과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보장없이 맺어진 블록은 일종의 변절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Henderson일파와 Snowdens일파에게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블록을 뺏을것을 계의한다면 이들이 그것을 받아주든 그렇지 않든 공산당은 이득을 보게 된다. 만약 그들이 블록을 뺏는데 찬성한다면, 우리는 이득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Lloyd George 자신이 대중을 격노시킨 순간에 우리는 대중 속에서 선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노동당을 도와서 당이 정부를 더 빨리 조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생략도 없이 아무런 숨김도 없이 Henderson을 반대하여 우리가 수행할 모든 우리의 공산주의적 선전을 대중이 더 빨리 이해하도록 대중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그들이 우리의 블록을 뺏을 것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Henderson과는 모든 노동자들을 연합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가들과 자기들이 제후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중에게 즉석에서 보여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Henderson일파와 Snowdens 일파가 Lloyd George를 타도하기를 겁내고 단독으로 주권을 장악하기를 겁내며 노동당을 반대하여 보수당에게 공공연하게 악수의 손을 내미는 Lloyd George의 지지를 은근히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위신은 추락되어 곧 전복되게 된다는 것이다. 동구에 있어서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방법도 위의 통일전선에 관한 Lenin의 이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동구공산주의자들은 전후에 연립 정부의 구성을 통하여 광범위한 계층을 포섭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을 부각시키려 하였지만 주도권을 장악한 후 부터 비공산주의세력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소비에트 정권의 외관을 완전하게 갖추게 된다.

통일전선 성공후 비공산주의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과는 달리 치밀한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헝가리공산당 지도자 「라코시」(Rákosi)는 이를 가르켜 「사라미」전술(Salami tactics)이라고 표현하였다.<sup>16)</sup>

즉 칼로 소시지를 조금씩 베어나가듯이 연립정부내의 비공산세력을 정치경찰을 통하여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헝가리의 경우 1945년 선거에서 공산당은 17%만을 획득하여 참패를 면치 못하였으나 Salami 전술에 의하여 제1당인 소농당과 사민당, 민족농민당을 모조

16)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 op. cit., pp. 89~91. salami란 단어는 이탈리아 소시지를 의미한다.

## 제 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리 거세한 1949년 선거에서는 반대파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한편 통일전선전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용어가 인민민주주의의 개념이다. 동구의 공산주의자들은 가능한한 공산주의를 연상시키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의 외관을 갖추려 하였다. 프롤레타리아독재나 소비에트조작이라는 용어를 피했을 뿐만아니라 공산당조차도 보통 다른 명칭으로 통칭되었다. 동구의 공산화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당시 즐겨 사용하고 또 그로부터 적지않은 정치적 이득을 얻어낸 용어가 인민민주주의의 개념이다.<sup>17)</sup> 이 개념은 이미 전통적인 부르조아국가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사회주의국가도 아니었던 당시 동구 여러나라의 정치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공산화를 겨냥하며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전후 동구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에트형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적용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슬기롭지 못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 동구의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새로 출범할 국가형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창출해냈다. 그것은 민족민주주의적(national democratic) 정치형태로, 혹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가장 진보적 형태라고 풀어 천명함으로써 당시 동서를 막론하고 전승연합국이 즐겨쓰던 「민주」내지 「민주화」의 개념에도 걸맞을뿐 아니라 소비에트형 정치체제와 구별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공산화를 우려하는 서방측과 국내의 비공산세력의 눈을 속일 수 있었다.<sup>18)</sup> 당시 동구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 개념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sup>19)</sup>

첫째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계급을 인정한다. 즉 이전의 착취계급이었던 부르조아계급은 비록 권력의 독점적지위에서 밀려났지만, 인민민주주의 하에서도 그 존재가 인정된다.

둘째로 정부의 권력은 노동자, 농민, 중간층, 지식인 및 부르조아지의 광범

17) 안병영., op. cit., p.163.

18) ibid. p.164.

19) 최동희, op. cit. p.15.

## 제2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위한 연합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레닌의 단일한 계급개념이나 국가 권위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인민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사유재산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권위에 의하여 보장된다. 인민민주주의는 국가의 영도적 역할과 기업가정신, 자유로운 기업의 이니셔티브간의 특수한 조화인 것이다.

넷째로 인민민주주의의 행정구조는 부르조아국가와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의 혼합물이다. 따라서 동구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헌법형태를 취했는데 헝가리는 1946년 헌법에서 서구유형을 따른 대통령제, 의회제를 채택하였고 체코와 폴란드는 전쟁전의 헌법을 그대로 채택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국왕제였다. 그러나 위와같은 인민민주주의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크게 변화하여 국가권력의 계급구성이나 경제체제의 성격 및 행정구조의 형태는 급격히 소비에트화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해서 시튼-와튼슨의 공산화 제3기에 이르면 인민민주주의론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의미하게 된다.

1948년 12월 25일 불가리아 공산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디미트로프는 “소비에트정권과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도시와 농촌노동자간의 연합에 근거를 둔 동일정부 체제의 두가지 형태이다. 양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바탕위에서 있다. 소련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최상의 전형이다”라고 밝힌다. 그런가하면 디미트로프와 더불어 한때 인민민주주의의 특수성을 강조하던 헝가리의 라코시역시 인민민주주의를 소비에트형태없는 프롤레타리아독재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0)</sup> 결국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가 동의어가 됨으로써, 인민민주주의는 동구의 불세비키화 과정의 위장전술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 안병영, op. cit., p.166.

## N. 결 론

동구가 공산화되는 배경에는 히틀러가 무모하게 불러 일으킨 제2차세계대전과 연합주의 일원인 소련이 승전국으로 부상한데 있다. 스탈린의 동구지배는 독일이 패망하고 영·미 연합국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힘의 공백상태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스탈린은 러시아의 꿈을 재현시키고<sup>21)</sup> 소련의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쟁기간 동구의 공산주의자들을 수용하면서 전후에 대비하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훈련시켜 놓았으며 미리 작성된 청사진에 따라 동구의 공산화를 추진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련군이 동구에 진주하여 소련이 선택한 공산주의자들을 여러면에서 지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 6개국에서 소련은 모스크바파의 권력장악을 위하여 그들의 정적들을 제거하여 주거나 심지어는 직접적인 군사행동까지 감행하였으며, 서방세계의 항의를 차단함으로써, 소련이 선호하는 인물들의 정권장악을 백방으로도왔던 것이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전선이나 인민민주주의론등의 전술을 통하여,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참여한 후 그의 반대세력을 점차적으로 거세하여 나갔다.

그들은 경찰관계 중요부서를 반드시 장악함으로써 정치테러를 통해 정적을 제거 또는 위협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민주적 경험을 쌓아 그들의 진출이 용이치 않는 경우에는 쿠데타까지 불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1948년 말까지는 일당독재의 공산체제를 완성시켰다.

한편 동구의 공산화과정을 통해 드러난 소련의 소비에트화테크닉은 여타지역의 공산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해방3년사의 기간중 북한의 공산정권수립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동구의 사례들

21) M. 매킨토쉬는 위대한 러시아를 건설하려는 충성심과 사명의식이 스탈린의 심리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 op. cit., pp. 222~223.

## 제 2 장 동구의 공산화 과정

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세계대전후 동구식 소비에트화패턴을 통해 공산화된 유일한 아시아국가라고 지적을 받는<sup>22)</sup> 북한의 소비에트화과정을 서대숙교수는 시튼-와트슨의 3단계설에 입각하여 소련의 점령정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sup>23)</sup>

북한의 경우 제1단계인 순수한 연립의 시기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1월까지로 잡아볼 수 있다. 이 시기는 5도행정위원회의 짧은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

소련당국은 민족주의지도자들과 공산주의지도자들이 5도행정위를 통해서 북한을 통치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조종하였다. 이와같은 연립은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과 비공산주의 지도자간의 이견이 타협할 수 없는 대립으로 발전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당시 5도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조만식을 포함하여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체포, 투옥되었고 체포를 면한 인사들은 남으로 탈출하였다. 제2단계인 사이비연립시기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된 1946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사이비연립을 위한 주요한 조치의 하나는 신민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1946년 8월 소련은 북조선노동당을 창설하도록 지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단계의 단독 공산정권의 출현은 1948년 2월초 조선인민군이 정식 발족되고 북노당의 2차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4월 남북협상회의가 열렸을 때 이미 공산독재정권의 존재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8년 9월 북한공산 정권의 수립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그 직후인 12월에 소련 군대는 북한으로부터 철수하였다.

22) 김갑철, op. cit., p.69.

23) 서대숙, "북한의 계획적 소비에트화", 극동문제연구소, op. cit., pp.444~445.